The China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5. 10. 21

중국 3Q25 GDP, 5%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중국 **백관열**
kyb1006@ls-sec.co.kr

높아진 경제 성장 목표 달성 가능성

중국의 3Q25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4.7%)를 소폭 상회한 +4.8%YoY로 집계.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5%를 밑도는 수치이지만 1~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5.2%로 연간 목표치를 상회 중. 4분기에 최소 +4.5% 성장만 기록해도 연간 목표치는 달성 가능하여 시장 전망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5% 성장을 고집할 정부 vs. 믿지 않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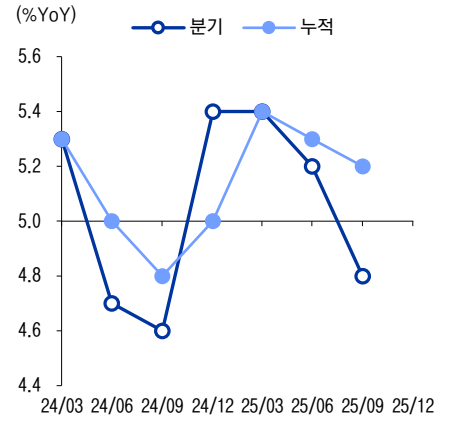
2026년 GDP 성장률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Bloomberg 기준)는 +4.2%로 기대치가 낮지만 중국 정부는 5% 내외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 19기 5중전회에서 정부는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35년까지 경제 규모를 2020년 수준 대비 2배로 확장할 것이라 공식 선언했으며, 이는 연평균 4.78% 성장해야지만 달성 가능한 수치. 2026년에도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여전할 수 있겠으나 늘 그래왔듯 중국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음

5%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내수 기여도 회복

GDP 성장률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순수출의 경우에는 우려와 달리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방어 역할을 수행 중이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 미중 갈등에 따른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버팀목이 되긴 어렵다는 판단. 결국 핵심은 내수 부문의 회복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금 주춤하기 시작하여 구조적인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제한적이며, 이구환신과 같은 소비 부양책의 효과도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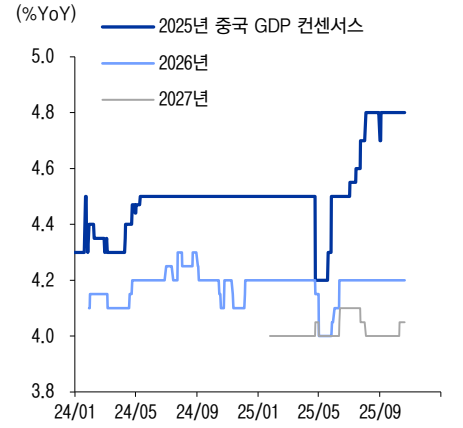
결국 올해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경제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가 꾸준히 달성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조적 내수 회복이 아닌 단기 부양책에 의존한 결과라면 실질적 의미는 제한적. 소비쿠폰 지급 등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일시적인 재정 확대에 의존하여 달성된 성장률은 급한 불만 끄는 식의 대응에 불과. 절대적인 성장률은 주요국 대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프리미엄을 줄만한 레벨인지는 의문. 결국 목표에 부합하더라도 근본적인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그림1 3분기 GDP 성장률 +5.2%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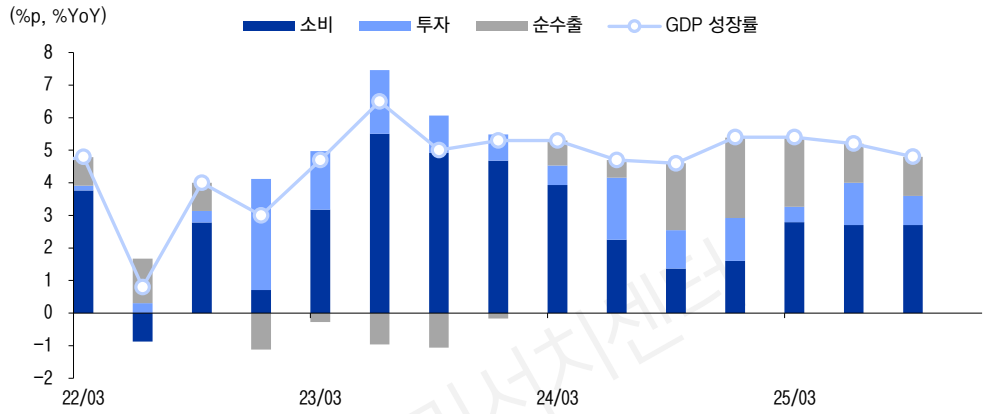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컨센서스 상향 가능성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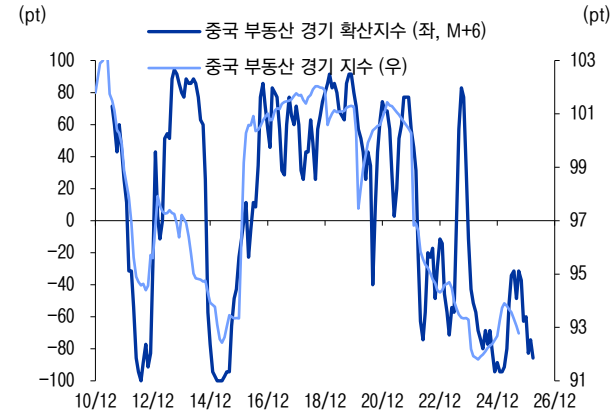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내수 기여도의 회복이 지연될수록 경기 둔화 우려는 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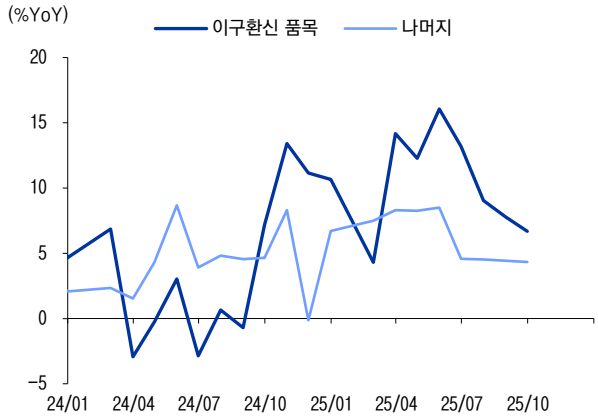
주: 2025년은 1~3분기 기준
자료: 중국 통계국,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중국 부동산 경기, 다시금 주춤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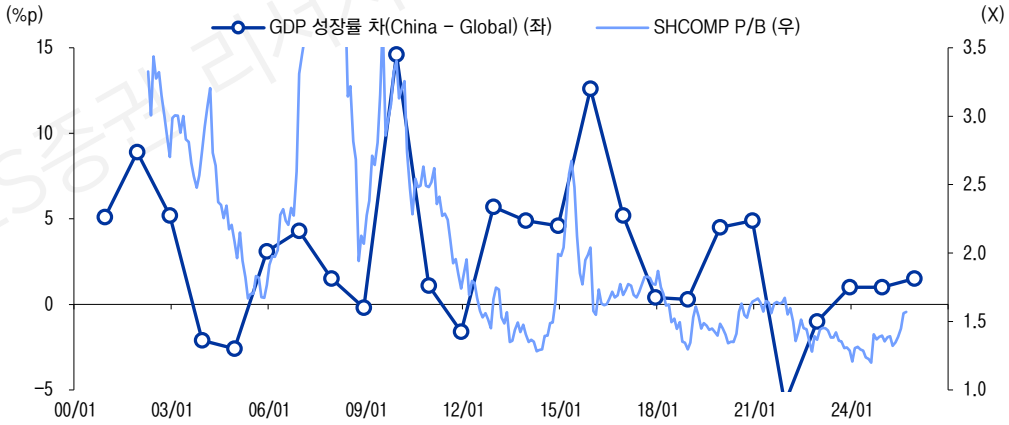
자료: 중국 통계국,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단기 효과에 그치는 이구환신 정책



자료: 중국 통계국,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절대적인 성장률이 높지만 프리미엄을 받을만한 레벨인가?



주: 2025년 Global GDP 성장률은 IMF 전망치 적용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백관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